

전남대, 종교인들 포교활동 ‘골머리’

신학기 캠퍼스에서 설문조사 등 핑계 집요하게 접근

알림판 설치·보안업체 직원 동원 단속해도 속수무책

신학기를 맞아 캠퍼스에서 종교인들의 포교(布教)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역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종교인들은 설문조사 등을 가장해 학생들에게 집요하게 접근하고, 종교에 빠진 학생들은 공부를 외면하고 포교활동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포교 활동은 유독 전남대에서 두드러진다. 전남대 관계자는 “종교인들이 캠퍼스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학생들의 신고가 매일 2~3차례 상황실에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들은 포교활동이 집중되는 것은 학교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전남대 측은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보안업체 직원들을 보내 포교를 제지하고 있지만 숨바꼭질 단속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종교인들이 사라졌거나 “알았다”며 캠퍼스 밖으로 나간 뒤 직원들이 사라지면 다시 캠퍼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는 최근 수년 새 캠퍼스 내 포교 활동이 심해지자 정문과 학생회관 등에 총장 명의로 ‘우리 대학교 내에서 선교(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단체 행위 및 미허가 행위를 일체 금지함’이라고 적힌 알람판까지 설치했다.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도 ‘유사종교 포교 활동 주의 안내’를 게시했다.

일부 종교인들은 소속 단체를 밝히며 전단지 등을 나눠주고 있지만 또 다른 종교인들은 논문이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문화기관, 행사업체로 위장해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형별 성격테스트, MBTI(성격테스트), DISC(행동유형), 도형 검사 등을 해

주겠다거나 인생 중요 순위 7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달라는 등 주로 설문·심리조사를 핑계로 접근해 추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또 해외 봉사·선교나 문화 강좌 참여 여부를 묻거나 심리검사가 당첨됐다고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종교인은 자신을 학생회 임원이나 학생단체 간부라고 밝히며 학과 소모임을

방자한 종교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전남대 후문에서 광주문화재단 직원을 사칭한 종교인이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러다 들통나기도 했다.

종교인들이 주로 접근하는 대상은 신입생, 전과생, 편입생 등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알려주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카피숍이나 스타디움 등에서 갖는 모임 참여를 권유한다. 첫 모임에서는 대개 설문조사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 안심시킨다. 이후 몇 차례 만남을 지속하면 심리 상담, 성경 공부

순으로 주제를 바꾸며 종교 가입 분위기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학생 A(22)씨는 “종교에 빠진 주변 학생들을 보면 주로 타지 출신으로 광주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혼자 사는 학생들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학생처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캠퍼스에서 종교인들의 포교활동을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종교인들은 학생들의 학업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학생들도 잘 판단해 종교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진 나면 이렇게 대비해요” 지진 안전주간(9월11일~15일)인 14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청사에서 지진발생에 대비해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암매장지 추정 2곳 발굴조사 나선다

5·18 기념재단, 제2수원지 상류 쪽 너릿재터널 인근

자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5·18기념재단이 올해 암매장지 발굴 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지 8년 만에 지난 2002년, 2006년, 2008년 광주시 조사에 이어 4번째다.

최근 자신을 버스운전기사라고 밝힌 송모(50)씨는 광주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10년 전 무등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5·18 당시 계엄군이 희생자를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한 것 같다고 제보했다.

그는 광주시 동구 용연동 제2수원지 상류쪽 넓고 평평한 부지에 영성하게 파묻힌 비료포대 같은 비닐이 돌이 없어진 채 2~3m 씩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최근 5·18이 다시 부각되자 해당 위치를 방문했다. 하지만 가시거리가 우거져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접근할 수 없었다.

송씨는 “당시 무서운 기분이 들어 자세히 살펴볼지 못했지만 5·18 때 군인들이 대충 시신들을 비닐에 싸서 묻어버린 마지 평평한 묘 같이 보였다”고 기억했다. 5·18재단 측은 “제2수원지 상류쪽은 5·18 때 군부대 주둔지가 맞다”면서 기록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송씨와 동행해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송씨의

제보를 포함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5·18 당시 희생자들을 암매장한 모습을 목격했다거나 암매장한 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알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중 광주시와 화순군 사이에 있는 너릿재 등 1~2곳은 신빙성이 있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올해 안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발견된 광주교도소 부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1997년부터 지난 1월까지 5·18 암매장지와 관련된 67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북면 12곳과 신고 부실한 46곳은 조사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가족·친지들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신청된 441명 중 75명만을 공식 행방불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암매장지 1차 조사는 2002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추정 암매장지를 발굴했지만, 광주항쟁 희생자와 관련된 유골 등은 찾지 못했다.

행불자 유족회측은 “무엇보다 암매장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암매장 추정지를 찾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한 탓인지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뇌물 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

이용부 보성군수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부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군수가 보성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초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제공받은 군수측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임대아파트 사업자 무리한 임대료 인상 제동

“증액 사유 사업자가 증명해야”

법원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1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14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자인 130명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입차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12월께 A형(1억3900만원), B

형(1억37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입주했으며, 2015년 12월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따라 A형은 700만원, B형은 690만원의 보증금 증액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2016년 12월께 또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으며, 임대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증액 청구가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입차인과 증액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정해야 한다면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액을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주장한 지난해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라는 이유만으로 제5조-1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증액해야 할 불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대주택 인근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비교해 봐도 인상해야 할 이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서 노숙인 집단폭행

1200원 빼앗은 10대들

광주동부경찰청은 14일 노숙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 공갈·폭행 등)로 전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6월27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 수기동 인근 중앙대고 아래에서 노숙하던 A(46)씨를 폭행하고 협박, 현금 12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발견하고 “돈 내놔. 도망가거나 소리치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주택가 노상방뇨 50대, 꾸짖는 80대 할머니 폭행




○...주택가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50대 남성이 이를 보고 나무라는 80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서행.

○...14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손모(50)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에 광주시 북구 임동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소변

을 보던 중 “왜 여기서 소변을 보냐”고 꾸짖으며 지나가던 김모(여·86)씨를 넘어뜨려 얼굴과 팔꿈치 등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손씨는 이날도 만취해 있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는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자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